



발전노조 해고자 산자부 앞 천막농성 정리, 청와대 앞 집중과 다양한 투쟁 해나갈 것



▲ 1/30 산자부 농성 정리 전, 선전전을 하는 해고자 모습

발전노조 해복투는 산자부 천막농성을 진행한 지 89일 차인 1월 30일부로 산자부 앞 천막농성을 일단락했다. 그동안 산자부 앞 농성에 함께 해준 현장 동지들과 연대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후 발전해복투는 산자부 천막농성과 함께 진행해 온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진행 경과

전문가 추천문제로 해고자 복직 본격적 논의 안 되고 있어

작년 10월 24일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위원 3인에 대한 추천을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 경사노위에 우선 추천 요청하고, 이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변, 변협, 노무사협회 순으로 추천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는 추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사노위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 의사를 밝히면서 전문가 위원 3인을 추천해 주었다. 그러나 동서/남동/서부 회사측은 공문의 신뢰성이 없다는 엉뚱한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특히 서부 사측은 해당 회사의 해고자를 복직논의에 서조차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발전노조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사측의 행태가 가관이지만, 빠른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차순위 기관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차순위 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변, 변협, 노무사협회이다. 해당 기관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자 복직 논의를 위해 빠르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측이 보여준 행태는 자칫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회의를 파탄 내려는 시간 끌기 수작으로 보일 수 있기에, 앞으로는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회의에 더 집중하여 해고자들의 복직에 함께하길 바란다.

전문가 추천의 빠른 결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고자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시작된 것이 2019년 9월이다.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노조 제10대 각급 임원선거 일정 확정

발전노조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30일 제10대 각급 임원선거(위원장·사무처장/본부장/지부장) 관련 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 및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제10대 각급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 절차 공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산하 지부에 중앙선관위 회의결과와 투개표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제10대 임원선거 일정

- ▷ 2020. 01. 30(목) 입후보 등록 공고
- ▷ 2020. 02. 11(화) ~ 02. 20(목) 17시 입후보 등록 마감
- ▷ 2020. 02. 20(목) 17시 등록 마감 직후 후보자 기호추첨 및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
- ▷ 2020. 02. 25(화) 투표총회 공고
- ▷ 2020. 03. 10(화) 06시 ~ 03. 11(수) 19시 투표총회
- ▷ 2020. 03. 12(수) 06시 ~ 19시 결선투표

※ 궁금한 사항은 각급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각급 임원선거 입후보 관련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발전노조 홈페이지(<http://baljeon.nodong.net>) 알림란에 있습니다.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2/8(토) 14시, 과천경마장 앞



한국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문중원열사가 돌아가신 지 두 달이 지났고, 서울로 고인을 모신지 한 달이 넘었다. 민주노총 열사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투쟁해왔다. 그러나 1월13일부터 시작한 마사회와의 집중교섭은 30일에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두 달의 시간 동안 한국마사회는 문중원기수의 죽음에 대해 당사자로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도 마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았고, 마사회와의 협의 자리를 만든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해 왔다. 문중원열사의 죽음 앞에 누군가는 사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조합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함께 투쟁!